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아델포스 중앙교회

◎ 기도제목 ◎ 성경: 엡 4:11-13

[아델포스 세계 선교회 센터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비전(Vision)	7대 실천 목표
복음전파로 제자를 삼아 양육하여 파송하는 교회	1. 예배의 감동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 2. 경험된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 3.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4. 경험된 말씀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교회 5. 복음의 자녀가 열매로 맺어지는 교회 6.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하는 교회 7. 양육된 제자들을 파송하는 교회

원로목사 : 임택순

담임목사 : 한상봉

협동목사 : 김현희 이용록 김기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8, 801호 아델포스중앙교회 (02)577-5555, FAX (031)970-4420

아델포스중앙교회 : www.adelphos.or.kr

아델포스세미나 : www.adelphos.co.kr

유 튜 브 검 색 : 아델포스중앙교회

유 튜브 검 색 : 아델포스세계선교회(미주)

E-MAIL : phosmission@daum.net

카카오TV: 우리방송&아델포스TV

제목 : 그의 영광의 찬송을

본문 : 엡 1:11-14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1-14)

[들어가는 말]

살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1:1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본문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 1:11)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10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바로 판타(πάντα)들 판타들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판타(πάντα)들과 땅에 있는 판타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모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업이 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누가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러한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확신을 갖기 전에 얻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

-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롬 8:23)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2)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말로 ‘전부터 바라던’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프로엘피코타스(προηλπικότας)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형이 프로엘피조(4276 προελπίζω)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엘피조(προελπίζω)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4253 προ)라고 하는 전치사와 엘피조(1679 ἐλπίζω), 엘피조는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대하고 바라던 것 소망하던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라고 할 때, 그 이전에 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이전에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 프로엘피조(προελπίζω)라고 하는 단어를 스트롱 사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그 기준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프로엘피조(προελπίζω)라고 하는 단어의 어의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나오고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갖다’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전에 라고 하는 그 앞에 확신하기 전에, 뭔가를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이미 가졌다고 이야기

를 하는지 완료태를 쓰고 있어서 ‘이미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얻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망, 소망을 갖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신하기 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확신하기 전인지 로마서 8: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에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 8:24)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그것을 소망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가졌는데 그 가진 소망은,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 8: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을 소망으로 지금 얻어가지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앞의 23절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은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롬 8:23)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23)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몸의 구속의 관점이 이제 맞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역을 다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완성된 구원이 실제적으로 감취인 게 아니라 드러나지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확신을 갖기 이전에 소망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성장해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역경가운데서도 주저앉거나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므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두 가지 소망

-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복음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너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하기 이전에 가진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밖에서 감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신 분 그분은 바로 드러난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분을 가리켜서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또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19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살전 2:19)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강림하실 그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녀들도 소망입니다. 아직 복음의 자녀를 열매로 얻지 못한 분들은 복음의 자녀들을 소망으로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에도 영광의 주님을 소망의 존재로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입니까? 몸의 구속이 현실화 될 때까지는 그 소망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합당한 삶

-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이렇게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자기 관리를 늘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요한일서 3:2절 이하를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영광의 소망을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습니까? 우리 본래의 본체의 실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옛날의 내 모습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는 그 시점에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절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을 아직 소망 가운데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관리를 어떻

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기준의 깨끗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끗함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주신 이유

-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2)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확신으로 그것을 얻지 못한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와 또한 복음의 열매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무엇으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기업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에파이논 테스 독세스 아우투(εις ἑπαίνον τῆς δόξης αὐτοῦ)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에이스 에파이논(εις ἑπαίνον)이라고 하는 이것을 ‘찬송이’ 그렇게 돼있는데 에이스(1519 εἰς)라고 하는 전치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압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안에서 우리로 에이스 토 에이나이(εἰς τὸ εἶναι) 그래서 에이스 토 부정사(εἶναι)는 ‘~하기 위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로’ 부정사 현재니까 계속해서 영광의 찬송 안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스(εἰς)라고 하는 전치사가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의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나 목적을 가르칠 때는 ‘~을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을 해줍니다. ‘~안에서, ~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 안에서 찬송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계속해서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주셨을 때 가능한데, 요한복음 5:44절을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요 5:44)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존재,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계속 구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영광의 찬송 안에 계속 머물러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의 차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요 7:18)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자기 스스로 가르치는 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16절로 올라가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 7:16)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주님은 자기의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다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다음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부정사 현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행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 주님도 주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께 의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은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4:10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하는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업으로 만들어서 창고에다 이렇게 모셔놔습니까, 안방에다가? 아닙니다. 먼저 그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겨줍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줍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를 보면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 우리한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 직분을 맡겨서 우리를 청지기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스스로 말하는 삶과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말하는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분명하게 알고 내 자신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그런 삶이 내게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고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1:12절을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찬송’, ‘찬양’의 존재 자체이신 주 하나님

그의 영광의 찬송할 때 ‘찬송’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변화형은 에파이논(ἔπαινον) 원형은 에파이노스(1868 ἔπαινος)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한글적인 찬송의 의미는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기]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만 부여하다 보니까 찬송 찬양하면 그냥 노래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가 이해하고 찬송을 그렇게 생활화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는 그런 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래의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면 1868번 에파이노스(ἔπαινος)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찬양할만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1909번과 134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1909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에피(ἐπι)라는 전치사입니다. 에피(ἐπι)라는 전치사는 ‘~위에’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저만치 멀리 위에가 아니라, 에피는 바로 위에 붙어서 붙은 위에를 에피 전치사로 씁니다.

그리고 134번 아이네오(αἰνέω)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이면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ἐπι)라고 하는 전치사가 전치사 본래의 의미는 ‘~위에 붙어 있는’ 위에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단어 앞에 합성될 때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고 그랬습니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떤 단어에 합성될 때는 완전함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영광의 찬송함이라고 할 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게 원래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면 완전한 그런 존재로서의 찬양하는 존재 안에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네오(αἰνέω)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136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이노스(αινος)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133번이 있는데 아이네시스(αἰνεσις)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찬양함’ 또는 ‘찬양’ 134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으로 연결을 하면 8416번 테힐라(תְּהִלָּה)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테힐라(תְּהִלָּה)는 ‘찬미’ 또는 ‘찬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단어 또 구약의 단어를 서로 연결해서 이 단어들이 성경에 적용되어진 내용으로 들어가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면만 생각했는데 또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용되어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다른 넓은 면에서 찬송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안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신명기 10:20절을 같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10:20)

그러면서 다음 절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뭐라고요? 찬양의 존재시요.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신 10:21)

우리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해주신 분 이런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찬양의 존재시다. 여기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가 테힐라(תהל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찬송 찬양이 바로 존재 자체를 찬송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할 때 존재 자체가 찬송 찬양의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부르는 행위적인 찬송 찬양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요? 듣기 좋으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속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보겠다 그 말입니다. 행위적으로는 아무리 의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누구도? 사탄과 사탄의 일군들도 행위적인 것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치장하고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바로 속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17:14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렘 17:14)

주는 나의 테힐라(תהלה) 찬송의 존재이십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는 그분을 찬송의 존재로 언급하면서 찬송의 존재인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뭐 어디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속사람인 그의 목숨적인 상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간구를 바로 찬송의 존재이신 여호와께 했던 겁니다. 왜? 그래야만 예레미야도 이름답게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치료해 달라라고 하는 그것과 아울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영혼의 그러한 갈급함, 영혼의 것,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목숨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이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온전한 상태로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의 그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하는 예레미야, 찬송의 여호와께 그런 간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행위로 부르는 찬송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찬송은 누가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의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의 찬송 안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머무르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찬송의 존재인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찬송의 존재인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경험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출 15:11)

이렇게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히브리민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가 보내줬다가 다시 또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그래서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와 권능에 의해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이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구속의 사건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민족도 애굽에서 어린 양의 대속으로 한번 구속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

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처럼 신앙생활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마무리 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숭한 문제들로부터 그분이 구원해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러야 될 그러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찬송의 존재이신 그분을 불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런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안에 계속 있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이유 그것도 이제 또한 살펴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사 43:21)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무엇 때문에 지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분의 찬송을 계속 부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삶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인지, 그분의 영광의 찬송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불러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계속 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누리겠죠. 시편 40: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 40:3)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분이 우리 입에다 두셨습니다. 우리 입에 그분께 올릴 찬송을 두었을 때 우리는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입에 두신 찬송을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할뿐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인생을 의지하던 그런 삶에서 찬송의 존재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새 노래는 뭐가 새 노래입니까? 계시록 14:1절을 보면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계(1093 γῆ)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000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음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1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인지를 아주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바로 이 찬미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하는 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 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둔 찬송은 새 노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의 복음은 누구의 이름을요? 그분의 이름. 우리가 증거 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 안에 계속 머물게 해준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이 현실화되어질 때 증거 되는 그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바로 누구로 소개를 해줍니까?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3875 παράκλητος)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 하게 될 때 요한복음 14:20 절 말씀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20)

그 날에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현실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인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라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은 죽은 자를 죽여서 드리는 데 어떻게 죽여서 드리느냐? 그냥 죽여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라고 하는 분을 복음으로 전하면 그분이 듣는 하나님께로 난, 죄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들어가서 그 자녀와 함께 어떻게 되어져요? 죽었다가 그다음에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살아난 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산 자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될 그분의 영광의 찬송 안에서 그분이 받을만한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스 가족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이러한 찬송을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증거 하므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를 복음의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이루어져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